

2/2(수) 스가랴 묵상 5

스가랴 3:1-10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심

하나님께서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와 천사와 사탄 사이에서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는 마치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 곁에서 욥의 믿음을 고소하는 장면을 회상하게 합니다(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당시에 사탄이 욥을 고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신앙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욥 1:8,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의 말씀을 바탕으로 추정해 볼 때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시기하고 고소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고소한 내용이 3절에 묘사됩니다(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3절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개인의 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대표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집을 화려하게 짓기에 재빨랐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발한 사탄을 도리어 책망하시고 자기 앞에 선 여호와와 천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4-5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와 천사는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은 이제 그들의 죄 된 옛사람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히신 것을 상징합니다(롬 6:6-7,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키라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그들이 행하고 지켜야 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7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죄사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더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규례를 따라 지키며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들’이고 그들 안에 “내 종의 싹을 나게 하리라”고 선언합니다(8절하,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구약에 ‘종’(사42:1; 49:3; 50:10)과 ‘싹(순)’(렘 23:5)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돌아온 ‘남은 자’들인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돌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일곱 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전의 기초석이자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행 4: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돌 안에 ‘일곱 눈’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성과 전지성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9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초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10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누리게 될 이 땅의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상징하는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정죄하는 존재로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비록 죄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마치 전쟁에 나가는 무장한 군인과 같이 담대하게 깨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 띠, 의의 호심경, 성경의 검 말씀과 함께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자신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흑백선전이 난무하는 선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올바른 지도자가 잘 선출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